

중국 연변 지역 남녀 대학생의 성 실태 비교

김미향¹ · 정재원²중국연변대학과학기술학원 전임강사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¹,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교수²The Sexual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in Yanbian China:
A Gender Comparison StudyJin, Meixiang¹ · Chung, ChaeWeon²¹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Full-time Lecturer,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China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genders in university students in Yanbian, China, regarding their experience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sex. **Methods:** This was a cross-sectional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using a convenient sampling method. Data was collected using an online survey via mobile -phones or computer devices. **Results:** There were 287 students who completed the survey, with 64.9% of them female and 35.1% male. Among sexual experiences, the amount of sexual intercourse ($\chi^2=4.70$, $p=.030$), students' feelings after their first sexual intercourse ($\chi^2=10.79$, $p=.005$), and their preferred contraceptive method ($\chi^2=7.67$, $p=.025$) differed by gender.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ders was shown regarding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sex. The average score of correct answers was 53.7%. Male stud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attitudes toward sexuality than females ($t=8.65$, $p<.001$). Attitudes toward sexuality differed between the genders in all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cept for an understanding of sexual education, where female and males alike were lacking. **Conclusion:** The results show that among university students, both genders show a lack of knowledge about sexuality, and that attitudes toward sex differ according to gender. This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comprehensive, gender-equal sex education in universities, and should focus especially on artificial abortion and providing accurate contraceptive methods.

Key Words: Sexual behavior; Knowledge; Attitude; University; Student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성은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로 생리, 정신, 심리, 사회문화, 정치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며, 성이 허용되는 방식과 정도는 문화와 사회적 관습의 영향을 받는다[1]. 중

국에서는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이후 전통적인 성문화와 서구사회의 성문화 간에 충돌이 생기면서 국민들의 성관념과 실제 성행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특히 최근에는 대학생들의 인공유산과 성병 발병률의 증가, 에이즈 발병의 저연령화 추세, 대학 내 성폭행 및 성추행의 증가, 미혼모 문제 등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 실제 2015년 중국 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는 대학생들을 HIV/AIDS고위

주요어: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 대학생

Corresponding author: Chung, ChaeWeon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 Daehak-ro, Jongno-gu, Seoul 03080, Korea.
Tel: +82-2-740-8482, Fax: +82-2-765-4103, E-mail: chungcw@snu.ac.kr

Received: Jul 17, 2019 | Revised: Jul 25, 2019 | Accepted: Jul 26, 2019

험군으로 지정한 바 있다[3].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지식은 성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기본 요소가 되고 보다 만족스럽고 책임감 있는 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중국 남녀 대학생의 실제 성지식은 여전히 부족한데 일례로, Lu [4]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지식 정답률은 56.5%였고, 정확한 콘돔사용법을 아는 학생은 25.3%에 그쳤으며[5] 성교와 임신가능성에 대해서는 48.6%가, 그리고 월경주기와 배란기에 대해서는 30%의 학생만이 정확히 알고 있는[6] 수준이었다. 개방적이고 활발한 성행동에 비해 이렇듯 성 지식이 부족한 것은 특히 원치 않은 임신, 인공유산의 증가 등 중국 내에서 증가하는 문제들과 무관하지 않다[5].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약 4,000만건의 인공유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 1,300만건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공유산을 선택하는 중국 여성의 47~50%는 24세 미만의 미혼여성이다. 또한 중국 여성의 인공유산의 비율은 29%로 비슷한 동양문화권인 한국(11%)이나 일본(10%)에 비해 훨씬 높게 보고되고 있다[7,8]. 뿐만 아니라 15~24세의 22,00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연구를 통해 성경험이 있는 여성 중 21.3%가 임신을, 그리고 4.9%가 반복 유산을 경험한 것을 보고한 바 있다[9].

한편 시장경제의 발전과 다문화환경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성도덕 관념들은 외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변화에 민감한 대학생들의 성태도 또한 개방화되었다[10]. 최근 연구에서 남성의 혼전순결률은 21.9%가, 여성의 혼전순결률은 26.7%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태도를 나타냈다는 결과나 혼전 동거에 관해서 반대한다는 학생은 24.1%를 나타낸 점[11]은 대학 내에서 손잡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던 90년대와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를 보여준다[1]. 대학생들의 성태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중국의 전통적 성교육은 아직까지도 순결교육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여성에게 더 보수적인 것이 현실이다[2]. 이로 인해 남학생들의 성태도는 여학생보다 더 개방적이고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성에 대해 회피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4]. 남녀 대학생의 성태도의 차이는 성지식 수준과 성경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기에 이들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남녀 대학생들의 성 관련 특성, 성지식 수준, 성태도 등 성 실태에 대한 비교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된 중국 내 미혼여성들의 인공유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현상에 반해 대학생의 성경험 비율은 낮게 보고되고 있다. 1990년대에 성경험이 있는 학생은 9.8~10.5%로 보고된 바 있는데[1] 2018년에 진행된 Cui [12]의 연구에서는 성

경험 자가보고율이 18.1%로 나타났으나 20년 전과 유사한 8.9%(2016년)[13], 9.3%(2014년)[6] 등의 보고도 있다. 대학생의 성행위가 많이 증가되었음이 사회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반면 자가보고되는 성행위는 20여 년 전에 비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일부 논문들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성경험이 있어도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14].

중국 내에서 연변 지역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인구 유동과 그로 인한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이다. 1996년 한국으로 노무 수출을 떠난 조선족은 1.5만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23.7만명이었고 2015년에는 무려 63.0만명이었다[15]. 이처럼 언어적 우세와 한민족이라는 신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지역으로 경제적인 부를 창조하기 위하여 노무 수출을 떠나게 되면서 자녀 단독 또는 편부모 가족형태를 유지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중국 내 다른 민족 학생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15,16]. 또한 연변 지역 학생들은 중국어 및 중국의 주류 문화도 습득하지만 조선어라는 민족 언어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게 되고, 유학이나 교류를 통한 해외 접촉의 기회가 많으며, 한국의 대중문화를 인터넷을 통하여 동일하게 접할 수 있는 독특한 다문화적 환경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들은 타 지역 대학생들과는 또 다른 성인식과 성 실태를 나타내리라 사료된다[14]. 그러나 중국의 북경, 상해, 성도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성 실태 기초 조사는 보고된 반면[11, 17] 연변 지역 대학생들의 성 실태 조사는 박순복 등[14]의 연구 외에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변 지역의 개방성 및 교류성의 확대에 의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동반되는 대학생들의 성 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성교육과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정치와 경제적 발전과는 달리 성교육은 공교육 체계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교육에서의 성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교육부에서 발행한 “중소학생 건강 교육 지침”, “고등교육 학생심리건강교육과정에 대한 기본 요구”, 국무원에서 발표한 “중국 아동발전 가이드라인(2011-2020년)” 등 문서에서 성교육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체계 하에서 시간, 교재 및 교사의 부족으로 여전히 체계적인 성교육은 제공되지 않는 현실이다[2]. 기성세대는 성이라는 주제를 불편해하고 부모나 학교 교사들은 자녀 또는 학생들이 성 관련 문제에 관해 질문하거나 도움을 구할 때 피하거나 얼버무리는 방법으로 해결한다[18]. 부모들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통일된 교재나 가이드라인이 없기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과목에

서 생리적인 측면을 다루거나 에이즈 예방 위주의 성교육을 하는 것이 전부이다. Leng 등[11]의 연구에 의하면 93.7%의 대학생들이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2.1%, 성교육의 체계와 형식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70.8%, 53.1%의 학생들이 성교육 교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Li [19]의 중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20%에 지나지 않았고,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25.8%로 공교육에서보다는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더 많이 받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연변 지역 남녀 대학생들의 성 실태 조사를 통하여 연변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에 적합한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국 연변 지역 남녀 대학생들의 성 관련 특성, 성 지식 수준 그리고 성태도를 비교조사하여 연변 지역에 적합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중국 연변 지역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성 관련 특성을 비교한다.
- 중국 연변 지역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수준과 성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중국 연변 지역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성 관련 특성에 따른 남녀 각각의 성지식 수준과 성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국 연변 지역 남녀 대학생의 성 관련 특성, 성 지식 수준과 성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중국 연변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F-tests의 경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2, 검정력(1-β) 0.8로 산출한 본 연구의 표본 수는 200명이었고 남녀 각 그룹당 최소 100명이었다. 본 연구가 QR코드를 이용한 온라인 자료수집방법을 활용하였기에 결측치를 고려하여 남녀 대상자 중 한 집단의 설문응답자가 110명이 될 때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개방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측치가 많은 13개 설문지를 제외한 결과 남자 101명, 여자 186명이 참여하여 총 287개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제외한 13개 설문지는 남자가 9부, 여자가 4부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 관련 특성, 선행 연구에서 활용된 성지식 및 성태도 측정도구 등으로 구성된 성격형 관련 문항 온라인 설문지이다. 연구도구는 대상자들의 응답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 한국어 버전과 중국어 버전으로 준비하였다. 원도구인 한글도구는 조선족으로서 간호학 석사를 소지한 간호사 2인이 검토하여 조선족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일부 용어 및 의미가 혼동될 수 있는 용어(헤르페스, 비아그라, 자위행위, 사정 등)에 중국어로 된 해석을 추가하였고, ‘인공유산’과 ‘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또한 완성된 설문지를 번역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중국어로 번역한 뒤 중국어가 모국어인 간호사 2인의 검토를 받았다. 자위행위 용어에 대해 수음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야 이해하기 쉽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지에 두가지 용어를 다 표기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연변 지역 조선족과 한족 대학생 각각 3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지 이해와 답변에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는 선행연구를 통해 성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성별, 학년, 민족, 부모의 중국 국내 거주 여부 등에 관한 4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2) 성 관련 특성

성 관련 특성에 관한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대학생들의 성 실태를 반영하는 주요 문항을 선정하여 본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부모의 성태도에 대한 인식, 성교육 수혜 경험, 이성교제 경험, 성경험 여부, 첫 성관계 대상, 첫 성관계 시 주도자, 첫 성관계 후 느낌, 첫 성관계 시 피임 방법, 선호하는 피임방법, 성관계 시 피임 여부, 임신 경험(본인 또는 상대

방) 등 총 11문항으로 조사하였다.

3) 성지식

성지식은 Choi 와 Ha [20]의 성지식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는데 남녀 성기관의 구조와 기능(10문항), 임신(5문항), 피임(5문항), 인공유산(3문항), 성병(9문항), 성생리(5문항), 자위행위(3문항) 등 7개 영역에 대한 지식을 묻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로 표기하고 정답일 경우 2.5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응답에는 0점을 부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점수가능범위는 0점부터 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지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 와 Ha [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4) 성태도

성태도의 측정은 5점 Likert 척도로 된 26문항의 DeGaston, Weed와 Jensen [21]의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성관계 허용성, 성행동에 대한 미래지향성, 또래의 압력, 부모의 성에 대한 가치 등 4개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허재경[22]이 수정한 6점 Likert 척도로 된 1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나와 매우 많이 일치 한다’(6점)에서 ‘나와 전혀 다르다’(1점)로 점수 범위는 19점에서 114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해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DeGaston, Weed와 Jensen [21]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5였고, 허재경[22]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먼저 연구자가 소속한 S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진행을 승인 받았다(IRB No. 1612/003-003).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에 연구자가 중국 설문조사전문사이트(www.wenjuan.com)에서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설문조사로 수집된 자료는 설문조사가 끝난 직후 바로 연구자가 다운로드하고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뒤 사이트에서 삭제하였다. 최종 저장된 자료에는 대상자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대상자 개인정보 또는 식별 가능한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데이터의 접근과 분석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대학의 연구윤리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목적 및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과 연구

의 참여를 철회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정보를 설문 응답 첫 페이지에 제공하고 응답을 원하지 않으면 ‘설문을 종료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클릭하여 설문을 종료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연구대상자들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자가 응답한 내용은 바로 web site에 저장되며 연구자도 응답한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를 보장함과 동시에 최대한 응답자가 거부감 없이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설문 응답을 종료한 뒤 전화번호를 남기면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9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행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의 URL을 클릭하거나 중국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위챗 메신저(한국의 카카오톡에 해당)로 응답 가능한 QR코드를 스캔하면 컴퓨터 또는 핸드폰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연구에 대한 소개글을 연변 지역 대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자유게시판에 올려 협조를 구했고 또한 QR코드가 있는 전단지를 학교정문, 학생식당, 학생휴게실 등에 게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어 또는 중국어 설문지 중 본인이 응답하기 편한 언어를 선택하여 설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응답에 걸리는 시간은 10분 내외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 관련 특성, 성지식 및 성태도는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성 관련 특성, 성지식 및 성태도의 차이는 t-test와 χ^2 test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성 관련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남학생이 35.2%(n=101)이고 여학생이 64.8%(n=186)였다. 남학생은 1학년이 63.4%로 가장 많았고 민족은 조선족이 73.3%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부모가 모두 중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50.5%로 가장 많았고 부모 모두 외국에 거주하여 대상자가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30.7%, 그리고 부모 중 한 명만 중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18.8%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N=287)

Variables	Categories	Male (n=101)	Female (n=186)	χ^2	p
		n (%)	n (%)		
Grade	1	64 (63.4)	110 (59.1)	13.30	.010
	2	21 (20.8)	41 (22.0)		
	3	6 (5.9)	30 (16.1)		
	4	10 (9.9)	5 (2.7)		
Ethnicity	Korean-Chinese	74 (73.3)	131 (70.4)	0.31	.856
	Chinese	27 (26.7)	55 (29.6)		
Parent's residency	Both in country	51 (50.5)	83 (44.6)	1.83	.401
	One in country	19 (18.8)	31 (16.7)		
	Both abroad	31 (30.7)	72 (38.7)		

여학생은 1학년이 59.1%로 가장 많았고 민족은 조선족이 70.4%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부모가 모두 중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44.6%로 가장 많았고 부모 모두 외국에 거주하여 대상자가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38.7%, 그리고 부모 중 한 명만 중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16.7%였다.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은 두 군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들의 학년별 분포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3학년은 여학생이, 4학년에는 남학생이 다소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다(Table 1).

2. 남녀 대학생의 성 관련 특성

남학생의 성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가 인식한 부모의 성태도가 폐쇄적이라는 응답(50.5%)이 개방적이라는 응답(49.5%)보다 많았고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55.4%로 교육받은 경우보다 많았으며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5.3%를 차지하였다. 여학생의 성 관련 특성은 대상자가 인식한 부모의 성태도가 폐쇄적이라는 응답(60.2%)이 개방적이라는 응답(39.8%)보다 많았고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58.6%로 교육받은 경우보다 많았으며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41.4%를 차지하였다.

한편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남학생이 30.7%로 여학생(19.4%)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chi^2=4.70, p=.030$). 첫 성관계 상대는 남녀 대부분 이성친구였다. 첫 성관계 시의 사절정에 대한 질문에서 남녀 모두 서로 '합의 하에'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분위기에 의해서 휩쓸려서' 첫 성관계를 가진 경우가 여학생은 25%, 남학생 또한 22.6%였고 여학생의 8.3%는 '상대가 강하게 요구해서' 라고 응답하였다.

첫 성관계후 느낌은 남녀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chi^2=10.79, p=.005$) 남학생은 '좋았다'는 응답이 54.8%로 가장 높았던 반면 여학생은 16.7%만이 동일하게 응답했다. 반면 여학생들의 33.3%, 남학생의 19.4%는 '후회한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의 50%, 남학생의 25.8%는 '죄책감은 없다'는 중간적 답변을 함으로써 두 군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첫 성관계 시 피임방법으로 콘돔을 사용한 경우가 남녀 각각 48.4%, 55.6%로 가장 많았고 질외사정으로 피임한 경우가 각각 29%, 25%로 높게 나타났다. 피임을 하지 않은 경우도 약 12%였으나 피임 방법에 있어 남녀 대학생 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선호하는 피임방법으로 남녀 모두 약 80%는 콘돔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여학생의 19.5%는 질외사정을 선호한다고 한 반면 남학생은 3.2%가 선호한다는 큰 차이를 보였고, 피임약 복용과 피임을 원치 않는 응답도 각각 다른 분포를 보여 선호하는 피임법에서는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7.67, p=.025$). 성관계 시 피임 여부는 '항상 한다'가 남녀 각각 67.7%, 72.2%로 가장 많았고 임신 경험은 남학생의 90.3%, 여학생의 94.4%에서 없다고 답하였으며 두 변수 모두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3.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수준의 차이

대상자의 성지식 점수는 남학생의 점수(55.57 ± 20.98)가 여학생(52.73 ± 16.82)보다 높았지만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지식의 하부 주제별로 측정문항의 수가 달라서 각각의 정답률을 비교해보았는데 남학생은 자위행위에 대한 지식의 정답률이 78.5%로 가장 높았고 피임(65.5%), 성병(58.0%), 성기관의 구조와 기능(57.9%), 인공유산(46.5%), 임신(46.2%), 성생리(37.6%)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피임에 대한 지식의

Table 2. Comparison of Sexu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Groups

(N=287)

Variables	Categories	Male (n=101)	Female (n=186)	χ^2	<i>p</i>
		n (%)	n (%)		
Perception of parents' attitude toward sexuality	Open-minded	50 (49.5)	74 (39.8)	2.52	.112
	Closed-minded	51 (50.5)	112 (60.2)		
Experience of sexual education	Yes	45 (44.6)	77 (41.4)	0.27	.605
	No	56 (55.4)	109 (58.6)		
Experience of dating	Yes	66 (65.3)	132 (71.0)	0.97	.325
	No	35 (34.7)	54 (29.0)		
Experiences of sexual intercourse	Yes	31 (30.7)	36 (19.4)	4.70	.030
	No	70 (69.3)	150 (80.6)		
- The first sexual partner	girlfriend/boyfriend	29 (93.5)	34 (94.4)	0.02	.634
	acquaintance	2 (6.5)	2 (5.6)		
- Decision about having sexual intercourse the first time	Under mutual agree	24 (77.4)	24 (66.7)	2.89	.165
	By the atmosphere	7 (22.6)	9 (25.0)		
	Under partner's insist	0 (0.0)	3 (8.3)		
- Feelings after the first sexual intercourse	Satisfied	17 (54.8)	6 (16.7)	10.79	.005
	Nothing special	8 (25.8)	18 (50.0)		
	Regretful	6 (19.4)	12 (33.3)		
- Contraception used during the first sexual intercourse	Condom	15 (48.4)	20 (55.6)	1.41	.843
	Oral pill	3 (9.7)	3 (8.3)		
	Coitus interruptus	9 (29.0)	9 (25.0)		
	None	4 (12.9)	4 (11.1)		
- Preferred contraceptive method	Condom	25 (80.6)	28 (77.8)	7.67	.025
	Oral pill	2 (6.5)	1 (2.8)		
	Coitus interruptus	1 (3.2)	7 (19.5)		
	None	3 (6.4)	0 (0.0)		
- Use of contraception	Rarely	10 (32.3)	10 (27.8)	0.16	.689
	Always	21 (67.7)	26 (72.2)		
- Experience of pregnancy	Yes	3 (9.4)	2 (5.6)	1.37	.241
	No	28 (90.3)	34 (94.4)		

정답률이 64.4%로 가장 높았고 자위행위(64.0%), 인공유산(57.5%), 성병(55.6%), 임신(52.7%), 성기관의 구조와 기능(49.8%), 성생리(32.2%)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정답률은 전체적으로 낮았다.

임신과 인공유산 두 가지 하위영역에서 여학생의 정답률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나머지 다섯 가지 영역에서 모두 남학생의 정답률이 더 높았는데 그 중 성기관의 구조($t=3.33, p=.001$), 인공유산($t=-3.30, p=.001$), 자위행위($t=3.09, p=.002$) 세개 영역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4. 남녀 대학생의 성태도의 차이

성태도 점수는 남학생의 점수(71.44 ± 12.24)가 여학생(56.66

± 16.3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8.65, p<.001$). 하위 영역별 점수는 성관계 허용성($t=5.55, p<.001$), 성행동에 대한 미래지향성($t=3.71, p<.001$), 포래의 압력($t=7.29, p<.001$), 부모의 성에 대한 가치($t=8.66, p<.001$) 등 모든 영역에서 남자대학생의 점수가 여자대학생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남학생의 성태도가 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5. 일반적 특성 및 성 관련 특성에 따른 성지식 수준과 성태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 및 성 관련 특성에 따른 성지식 수준은 남학생에서는 이성교제 경험과 성경험 유무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이 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성지식 점

Table 3. Comparisons of Knowledge about Sexuality and Attitudes toward Sexuality between the Two Groups (N=287)

Variables	Male (n=101)		Female (n=186)		t	p
	M±SD	% with correct answer	M±SD	% with correct answer		
Total score of knowledge about sexuality	55.57±20.98	55.6	52.73±16.82	52.7	1.17	.243
Sexual organs	14.48±5.31	57.9	12.45±4.74	49.8	3.32	.001
Pregnancy	5.77±3.60	46.2	6.59±3.35	52.7	-1.92	.055
Contraception	8.19±3.56	65.5	8.05±3.17	64.4	0.35	.729
Artificial abortion	3.49±2.09	46.5	4.31±1.88	57.5	-3.30	.001
STDs	13.04±6.19	58.0	12.51±5.20	55.6	0.73	.465
Physiology of human sex	4.70±3.09	37.6	4.02±2.64	32.2	1.88	.061
Masturbation	5.89±2.99	78.5	4.80±2.60	64.0	3.09	.002
Total score of sexual attitude	71.44±12.24	-	56.66±16.35	-	8.65	<.001
Permissiveness	22.01±5.81	-	17.77±6.37	-	5.55	<.001
Future orientation	19.92±4.49	-	17.63±5.25	-	3.71	<.001
Peer pressure	18.09±4.55	-	13.89±4.72	-	7.29	<.001
Parental values	11.42±3.76	-	7.37±3.79	-	8.66	<.001

Table 4. Difference in Knowledge about Sexuality related to General and Sexu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87)

Variables	Categories	Male (n=101)		Female (n=186)	
		M±SD	t or F (p)	M±SD	t or F (p)
Grade	1	54.22±21.95	0.30 (.829)	49.89±17.13	5.10 (.002)
	2	58.45±19.90		52.32±16.16	
	3	54.58±12.89		62.67±13.42	
	4	58.75±22.40		59.00±12.57	
Ethnicity	Korean-Chinese	54.59±20.82	0.77 (.442)	52.40±17.19	0.40 (.686)
	Chinese	58.24±21.57		53.50±16.01	
Parent's residency	Both in country	57.01±22.10	1.85 (.162)	52.92±16.36	0.04 (.958)
	One in country	47.37±19.78		53.23±17.86	
	Both abroad	58.23±19.11		52.29±17.11	
Perception of parents' attitude toward sexuality	Open-minded	56.85±21.85	0.61 (.546)	53.89±15.51	0.76 (.447)
	Closed-minded	54.31±20.22		51.96±17.65	
Experience of sexual education	Yes	58.39±16.58	1.26 (.210)	57.24±13.99	3.28 (.001)
	No	53.30±23.84		49.54±17.95	
Experience of dating	Yes	58.64±19.60	2.05 (.043)	53.12±16.83	0.50 (.617)
	No	49.79±22.53		51.76±16.92	
Experiences of sexual intercourse	Yes	61.45±16.90	1.90 (.060)	58.12±14.68	2.17 (.032)
	No	52.96±22.16		51.43±17.08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t=2.05, p=.043$) 성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성지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1.90, p=.060$).

반면 여학생은 학년($F=5.10, p=.002$), 성교육 수혜 경험($t=3.28, p=.001$) 그리고 성경험 유무($t=2.17, p=.032$)에 따라 지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학년이 49.89점으로 가장 낮았고 3학년이 62.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57.24점으로 성교육을 받은 경험

이 없는 학생의 성지식 점수 49.54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경험이 있는 학생의 성지식 점수가 58.12점으로 성경험이 없는 학생의 점수 51.4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4).

남학생의 성태도는 성경험이 있는 학생이 성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t=2.40, p=.018$)를 나타냈고 여학생의 성태도는 학년($F=10.71, p<.001$), 민족($t=-3.07, p=.002$), 부모 국내 거주 상태($F=5.21, p=.006$), 부모의 성태도에 대한 인식($t=3.88, p<.001$), 이성교제 경험($t=4.89,$

Table 5. Difference in Attitudes toward Sexuality related to General and Sexu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87)

Variables	Categories	Male (n=101)		Female (n=186)	
		M±SD	t or F (p)	M±SD	t or F (p)
Grade	1	70.08±12.50	1.21 (.312)	52.25±16.35	10.72 (< .001)
	2	73.81±13.57		58.66±13.01	
	3	78.50±8.12		66.67±13.32	
	4	70.90±8.10		77.20±15.48	
Ethnicity	Korean-Chinese	72.14±11.97	-0.95 (.344)	58.99±15.30	-3.08 (.002)
	Chinese	69.52±12.99		51.09±17.51	
Parent's residency	Both in country	69.02±13.09	2.73 (.071)	52.83±17.25	5.21 (.006)
	One in country	71.42±6.19		63.00±16.17	
	Both abroad	75.42±12.84		58.33±14.30	
Perception of parents' attitude toward sexuality	Open-minded	73.12±11.28	1.38 (.172)	62.18±16.00	3.88 (< .001)
	Closed-minded	69.78±13.01		53.00±15.60	
Experience of sexual education	Yes	72.33±9.97	0.66 (.512)	58.18±15.08	1.07 (.286)
	No	70.71±13.85		55.58±17.17	
Experience of dating	Yes	72.85±10.93	1.61 (.112)	60.45±14.34	4.89 (< .001)
	No	68.77±14.19		47.39±17.35	
Experiences of sexual intercourse	Yes	75.74±10.17	2.40 (.018)	71.72±10.03	6.88 (< .001)
	No	69.53±12.66		53.04±15.49	

$p < .001$), 성경험 유무($t=6.88, 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의 성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이 높아 갈수록 성태도 점수가 높아졌고($F=10.71, p < .001$) 조선족의 성태도 점수(58.99 ± 15.30)가 한족 및 타민족(51.09 ± 17.51)보다 높게 나타났다($t=-3.07, p=.002$). 또한 양친 모두 중국에 거주하는 학생의 성태도 점수가 가장 낮았고 부모 중 한 명이 중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 성태도 점수가 63.00점으로 가장 높았다($F=5.21, p=.006$). 부모의 성태도가 개방적이라고 인식하는 여학생들의 성태도 점수(62.18 ± 16.00)가 폐쇄적이라고 느끼는 학생들의 성태도 점수(53.00 ± 15.60)보다 높게 나타났다($t=3.88, p < .001$)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60.45 ± 14.34)이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학생(47.39 ± 17.35)에 비해 성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4.89, p < .001$). 또한 성경험이 있는 학생(71.72 ± 10.03)이 성경험이 없는 학생(53.04 ± 15.49)에 비해 성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6.88, p < .001$)(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중국 연변 지역 남녀 대학생들의 성 관련 특성, 성 지식 수준 그리고 성태도 등 성 실태를 비교조사하여 이 지역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본 연구대상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형태가 남녀 각각 49.5%와 55.4%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의 부모님의 취업으로 인해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학생은 5.8%라는 연구결과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나[9], 조선족 대학생을 대상으로 박정환 등[16]의 연구에서 42.3%만이 부모와 동거한다는 비율과 유사하여 연변 지역 가족형태를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71%가 조선족임을 감안할 때 한중 수교 이후 부모들의 한국으로의 취업이 많아지면서 가족 간 특히 자녀와의 별거가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16]. 이러한 가족의 배경은 여학생들의 성태도에 영향을 주어 편부모와 생활하거나 양친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여학생의 성태도가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조선족 여학생들의 성태도가 한족 및 타민족 여학생들에 비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된 성태도는 성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23] 이성교제 및 성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한국 여대생들의 성경험 예측요인에서 함께 사는 부모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24]. 다만 남학생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성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추후 유의미한 관련변수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대학생들의 성경험 비율은 18.1%(남자 25.7%, 여자 9.0%)[12], 19.3%(남자 19.4%, 여자 14.7%)[4] 등으로 다양하

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의 남학생 30.7%, 여학생 19.4%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남학생의 성경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은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남녀 모두 1학년이 가장 많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경험 비율이 높아진 결과를 볼 때 대상자 중 조선족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연변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성경험 비율이 중국 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수치는 한국 대학생들의 성경험 비율이 50.7%(남자 61.0%, 여자 43.4%)[25], 65.5%[24]인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2007년 한국 대학생들의 성경험이 19~50.3%로 보고될 때 연변 지역 대학생들의 성경험은 12.8%로 한국 대학생보다 성경험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14]. 연변 지역 대학생들의 성경험은 중국 내 타 지역에 비해 높지만 한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중국[6]과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24] 양쪽 문화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연변의 대학생들은 부모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한국의 보다 개방된 성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중국 전통적인 금욕형의 성교육이 아닌 성숙한 성 주체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의 성경험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첫 성관계는 남녀 대학생 모두 ‘서로 합의하에’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첫 성관계 후 느낌은 남학생은 ‘좋았다’가 가장 높았던 반면 여학생은 16.7%만 동일하게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점이다. 중국 대학생의 혼전성행위에 대한 Fan과 Shen [26]의 질적연구 결과에서도 남녀 간에 첫 성경험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은 첫 성관계 후의 결과에 대한 우려나 책임보다는 그 당시의 분위기와 느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첫 성경험을 황홀하다고 하거나 잊지 못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남자친구가 강하게 원하기에 더 이상 거절하면 사랑하는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허락하는 ‘합의’과정을 거치며 따라서 만족감 보다는 임신에 대한 불안함이 먼저 생긴다고 하였다. He [27]의 연구에서도 첫 성관계를 요구한 사람은 94.0%에서 ‘남자친구’였는데 본인이 주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성행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동반된 첫 성경험은 ‘죄책감이 없다’는 중간적인 답변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여학생들을 위한 성교육에서는 성적자율성과 성적자기주장을 포함한 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성교육 수혜 경험이 있는 학생은 남녀 각각 44.6%, 41.4%로 이는 Li [19]의 학교성교육 수혜율이 20%인 보고를 고려할 때 학교 및 부모의 성교육을 포함한 수치로 생각된다.

한국청소년의 성교육 수혜율인 77.1%[2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중국에서 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 가정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깨친다’, 청소년들은 성지식을 모르면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이다, 성지식을 접하지 못하게 폐쇄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폐쇄보험론’, 필요할 때 다시 교육한다는 ‘응급론’ 등 전통적 관념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성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29]. 또한 현재 중국의 공교육에서는 시간, 교재 및 교사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성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현실이다[2].

이러한 성교육의 부족은 대상자들의 성지식수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본 연구대상자들의 성지식 정답률은 남녀 각각 55.6%와 52.7%로 중국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보고된 성지식 정답률 56.5%[4]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박승미 등[30]의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 대학생 정답률 79.9%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남녀에 따라 성지식 수준에 차이가 없었으나 남학생들은 성기관 구조와 자위행위 등에 대해 점수가 높았고 여학생들은 인공유산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는 김남희 등[23]의 한국 대학생 대상 선행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동등한 성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성별과 성지식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Dang 등[6]의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의 가임기와 인공유산에 관한 지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점수가 높았다는 결과와는 일관된다. 따라서 대상자들은 성교육이 부족한 현실에서 각자 성에 관하여 관심있는 부분의 지식을 습득한 결과로 생각된다.

성지식 문항 중, ‘인공유산은 최소한 7개월까지는 괜찮다’는 13.6%의 정답률을, ‘임신 2개월 내의 초기 인공유산은 여성의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66.9%의 정답률에 그쳤다. 정확한 성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특히 중국의 사회적 환경, 예를 들면 길거리나 대중교통의 광고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과 약국들의 ‘무통인공유산’, ‘응급피임’ 등의 홍보는 청소년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그 결과의 엄중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 인공유산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5].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학생들의 성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던 점은 체계적 성교육을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남학생의 성지식 점수가 높았던 점과 성경험이 있는 남학생의 성지식 점수가 높았던 점은 이성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관계를 체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남학생들은 성에 대해 관심이 높고 성

지식 수준이 여학생보다 높지만 임신, 인공유산 등 성행위의 결과에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게 나타난 점은 책임을 함께 하는 성행위에 대한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동시에 여학생들은 성지식 습득의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을 통하여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성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남녀 대학생들의 성태도는 박순복 등(2007년)[14]이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48.1점에 비해 남학생은 약 71점, 여학생은 약 57점으로 크게 상승하여 연변 지역 대학생들의 성태도가 훨씬 개방적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전히 남학생들의 성태도가 여학생보다 더 개방적이며 이는 중국 내 한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4,11]와도 같은 결과일 뿐 아니라 한국 남자대학생이 여학생보다 성경험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며 성태도가 더 개방적인 결과와도 일관되어[23] 동양문화권에서는 아직 남성에게 더 허용적인 분위기가 학생들의 성태도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사료된다.

남학생들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성경험의 유무를 제외하고 성태도가 다르지 않았으나 여학생들은 성교육 수혜 경험을 제외한 모든 일반적 특성 및 성 관련 특성에 따라 성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점은 여학생들이 자신의 나이나 학년, 가족 형태, 부모 등의 기본적인 요인에 따라 보다 민감하게 성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인식을 만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여학생의 성태도가 학년이 높아갈수록,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성경험이 있는 경우에 더 개방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회적 경험과 교제를 통한 자연스러운 태도의 변화로 생각된다 [4,23]. 따라서 이러한 성별의 차이를 추후 성교육내용과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편의표집하였기 때문에 학년 별로 고른 비율의 대상자가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역적 특성상 조선족의 비율이 높았으나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온라인 설문 참여로 민족을 제한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국 내 조선족과 한족 및 기타 민족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성인식과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해내고 이를 교육과 임상에서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결론 및 제언

부모 및 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공교육에 아직까지 체계적인 성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들은 가정과 또래, 미디어 등을 통한 정보로 성

인식과 지식, 그리고 성경험을 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히 경제와 문화의 대외 교류가 활발한 연변 지역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인지 정도와 경험을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지적, 경험적 수준에 부합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금욕형 성교육이 아닌 연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학 내 공교육으로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제언하는 바이다. 먼저 학부모와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된 성교육표준안이 필요하다. 또한 인공유산과 정확한 피임법 등 실질적인 성지식을 전달하는 성교육이 시급히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연변 지역 대학생들에게는 양성평등에 기반한 그리고 남녀의 특징을 고려한 개별화된 성교육이 필요하다. 여학생에게는 성행동에 대한 책임과 자율의 균형, 그리고 여학생들에게는 성지식 습득의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성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Liu WL. Sexu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Beijing: Qinghua Publishers; 2013. p. 15.
2. Sex educator guideline. Beijing: Marie Stopes; 2013. p. 23.
3. Liang HX, Yun CH, Zhang Y. Research Progress of college students' cognition of AIDS and campus intervention. Journal of Shenyang Medical College. 2018;3:236-42.
4. Lu F. Investigation on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among junior college students in Taizhou. The Chinese Journal of Human Sexuality. 2016;25(2):136-9.
5. Yuan XW, Liu FY. A survey on the knowledge about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Guangzhou. China. Health Medicine Research and Practice. 2018;15(1):41-4.
6. Dang YH, Guo Z, Li ZL, Peng YJ, Zhang XH, Zhang JH, et al. Knowledge and demand fo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mong undergraduates in Lanzhou. School of Public Health. 2014;35(10):1497-500.
<https://doi.org/10.16835/j.cnki.1000-9817.2014.10.022>
7. Sedgh G, Singh S, Henshaw SK, Bankole A. Legal Abortion worldwide in 2008: Levels and Recent Trend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2011;37(2): 84-95. <https://doi.org/10.1363/4318811.Epub2011Aug9>
8. Li JK, Temmerman M, Chen QJ, Xu JL, Hu LN, Zhang WH. A review of contraceptive practices among married and unmarried women in china from 1982 to 2010. The European Journal of Contraception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2013;

- 18:148-58. <https://doi.org/10.3109/13625187.2013.776673>
9. Zheng XY, Chen G. Survey of youth access to reproductive health in Chin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port. Beijing: Institute of Population Research Peking University; 2010. Report No.:1674-1668-(2010)3-0002-15.
10. Zheng Y. Adolescent sexual mental health problems. Beijing: Zhishichanquan Publi-shers; 2011. p. 73-6.
11. Leng KY, Luo X, Wang JH, Han JK, Shen YC. Research on the survey of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among undergraduates in Sanya. Henan Journal of Prevention Medicine. 2018;29(6):401-5.
<https://doi.org/10.13515/j.cnki.hnjpm.1006-8414.2018.06.001>
12. Cui ZK. Survey on the sexual cognition and sexual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Chinese Journal of Human Sexuality. 2018;27(1):137-40.
<https://doi.org/10.3969/j.issn.1672-1993.2018.01.042>
13. Liu YJ, Wang AN, Wang P, Bao BH, Bi CL, Tong BS. Status of premarital sexual behavior and associated influencing factors analysis among college students in Hefei, China. Chinese Journal of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6;20(11):1154-64.
14. Park SB, Cho KJ, Lee MH.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Chinese-Kore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07;13(1):57-65.
15. Zheng XZ. Study on Transnational Mobility of Chaoxian Nationality and Its Impact. Journal of North Minzu University. 2018;1:44-9.
16. Park JH, Lee JM, Kim KH. Relationship among family function, self-esteem, and powerlessness in Korean-Chines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 Research. 2017;32(2):163-91.
17. Li BL. Overview of college students for sexual Education in China and foreign countries. The Chinese Journal of Human Sexuality. 2010;19(10):31-3.
<https://doi.org/10.3969/j.issn.1672-1993.2010.10.011>
18. Xie PG, Qin YZ.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of current situation of the sex education of the contemporary college students. Education Teaching Forum. 2016;44:52-3.
19. Li CY. College students sex education in China. Labor Security World. 2016;32: 75-6.
20. Choi MS, Ha NS.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4;10(4):318-30.
21. De Gaston JF, Weed S, Jensen L. Understanding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sexuality. Adolescence. 1996;31(121): 217-31.
22. Hur JK.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and adolescent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dissertation]. Seoul: Seoul Women's University; 2001. p. 1-84.
23. Kim NH, Park YJ, Jung HS.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2015;7(2):17-42.
24. Kim JA. Analysis of sexual related predicting factors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015;1(1):15-26.
<https://doi.org/10.17703/JCCT.2015.1.1.15>
25. Koo SM, Kim HJ.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knowledge or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15(12):1-11.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1>
26. Fan ML, Shen F. College students' premarital sexual behavior and attitude. Contemporary Youth Research. 2015;6:82-7.
27. He SS. Characteristics of coerced first sexual intercourse in college students. The Chinese Journal of Human Sexuality. 2012;21(12):63-8.
28. Lee EY.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experienc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9;19(3):624-34. <https://doi.org/10.5392/JKCA.2019.19.03.624>
29. Wang BY. Sexuality health Education. Beijing: Renminweisheng Publishers; 2011. p. 62.
30. Park SM, Kang SZ, Kim MJ, Im HZ, Cha JH.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Research Institute for Basic Sciences Hoseo University. 2016;(24):97-106.